

## 화가 모네에게 색과 빛을 앗아간 질병, 백내장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1840~1926)는 인상주의의 창시자이며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화가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기존 그림과 달리, 빛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색과 형태를 포착해 당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86년의 생애 동안 60년 이상 즐기치게 그림을 그린 모네가 남긴 유화 작품 수는 대략 2,000여 점.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그림에 몰두했는지 알 수 있다. 모네는 태양이 뜨고 질 때까지 캔버스를 바꿔가며 하나의 대상을 그렸고, 온종일 빛을 직접 보면서 작업하느라 시력은 크게 손상되었다.

글·정리 편집실



인상파 이름의 기원이 된 그림 <인상, 해돋이> 1872

### 빛에 매료된 화가, 모네

미술사를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인상주의’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름 그대로 어떤 대상을 보고 화가가 느낀 주관적인 인상대로 그림을 그렸던 예술 화풍을 뜻한다. 이 화풍은 1874년 파리의 한 전시에서 탄생한다. 기존의 보수적인 살롱을 거부한 미술계의 이단아들이 전시를 연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사용됐던 원근법, 구도, 채색 등의 회화 기법이 사라지고 강렬한 색상과 거친 붓질로 그리다 만 듯해 보이는 작품들만 가득했다. 그 중심에 바로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가 있었다. 당시 이 전시를 보러 왔던 한 미술 평론가는 모네의 작품을 보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시회. 날로 먹는 장인 정신이 참으로 인상 깊다’라고 잡지에 기고한다. 평론가가 말한 인상주의란 그들의 작품에는 인상만 있고 숨겨진 의미는 없다는 조롱이었다. 그러나 미술계의 이단아들은 오히려 악평에서 말을 따와 스스로를 인상파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확한 형태와 사실적 묘사에



<파라솔을 든 여인> 1875



<지베르니 석양의 건초더미> 1891  
크리스티 경매에서 모네의 작품 중 최고가인 약 960억 원을 기록했다.

공을 들이던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풍경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인상을 그리려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연마해 나갔다.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도 빛을 가장 집요하게 관찰했으며, 다른 인상파 화가들이 화풍을 바꿀 때도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빛과 대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산으로, 강으로 캔버스를 들고 빛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다녔고 자신의 화폭 속에 담았다.

### 모네의 백내장에 영향을 준 것은?

인상파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모네는 정원이 딸린 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다. 그의 유명한 작품, 수련 연작도 지베르니에 있는 자택 정원에서 그린 것이다. 그는 날씨, 계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수련>의 빛과 색채를 1926년 숨을 거둘 때까지 27년에 걸쳐 무려 250여 점의 연작으로 그렸다. 하루종일 빛을 직접 보며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갔던 모네는 말년에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게 된다. ‘빛의 화가’에게 가혹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활을 살펴보면 백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후천성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나이를 먹을수록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외에도 흡연, 야외 활동, 자외선은 백내장을 유발할 확률을 높인다. 모네는 나이도 지긋한 데다 평생 담배를 피웠고 빛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해왔다. 당시에 자외선을 차단할 선글라스는 있었지만 자연 그대로를 캔버스에 담으려던 그가 선글라스를 끼고 작업했을 리 만무하다. 백내장 증상은 악화했고 모네는 지독한 절망을 느끼며 자신감을 잃었다. 1918년, 모네는 더 이상 색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힘들고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힘들다고 고백한다.

### 모네의 화풍을 바꿔 놓은 백내장

모네가 백내장에 걸린 후 그린 작품들은 보면 이전의 색감과 두께를 완전히 무시한다.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을